

갈뱅과 바르트의 예정론 비교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최원민

갈뱅과 바르트의 예정론 비교연구

지도 신 옥 수 교수

이 논문을 M.Div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최 원 민

최원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 교수 _____ 인

부심 : 교수 _____ 인

부심 :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 과제 및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II. 갈뱅의 예정론	3
A. 갈뱅의 예정론의 개요	3
1. 갈뱅의 예정론의 위치	5
2. 갈뱅의 초기 예정론의 삶의 자리	8
3. 갈뱅의 예정론의 발전 과정	11
B. 갈뱅의 예정론의 내용	12
1. 이중 예정	12
2. 선택의 근거와 이유	13
3. 예지와 예정	14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19
5. 예정의 성경적 근거	20
a. 선택의 성경적 근거	21
b. 유기의 성경적 근거	23
c. 로마서 9~11장	23
C. 갈뱅의 예정론의 특징	24
III. 바르트의 예정론	30
A. 바르트의 예정론의 개요	30
1. 바르트의 전통적인 예정론에 대한 비판	30

2. 바르트의 예정론의 위치	31
B. 바르트의 예정론의 내용	33
1. 예정의 방향과 근거	33
a. 예정의 방향	33
b. 예정의 근거	34
2.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35
a. 선택의 주체와 객체인 예수 그리스도	35
1)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	36
2)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	37
b. 이중 예정	39
3. 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중개	40
4. 개인의 선택	42
C. 바르트의 예정론의 특징	42
IV. 갈뱅과 바르트의 예정론 비교	45
V. 결론	49
참고문헌	52

I. 서론

A. 연구 과제 및 연구의 목적

칼 바르트(K. Barth)의 예정론은 전통적인 예정론을 비판하여 등장하면서 예정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場)을 만들어 놓았다. 바르트의 예정론은 갈뱅(J. Calvin)의 예정론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과 방향에서 논의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학자의 예정론을 비교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갈뱅과 바르트의 예정론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는데, 우선 갈뱅의 예정론을 고찰해 볼 것이다. 갈뱅의 예정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갈뱅이 자신의 예정론을 전개해감에 있어서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갈뱅이 예정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신학은 당시의 삶의 자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신학은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 어떤 형태를 갖고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갈뱅의 예정론이 등장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갈뱅의 예정론의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갈뱅의 예정론이 그 당시에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예정론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던 신학적인 주제들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에 본 논문은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바르트는 갈뱅의 전통적인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바르트는 먼저 전통적인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바르트는 오늘날 예정론을 이해함에 있

어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바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바르트가 자신의 예정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그리고 두 신학자의 예정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신학자의 예정론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 보고, 두 신학자가 자신의 예정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먼저 갈뱅의 예정론을 다룬다. 갈뱅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갈뱅이 이 예정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살펴볼 것이다. 그의 주저서인 『기독교 강요』 최종판¹⁾을 중심으로 갈뱅의 예정론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바르트를 다룰 것이다. 그의 주요 저서 『교회 교의학』²⁾ II/2권에 나오는 예정론을 중심으로 바르트의 예정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예정론을 비교 분석하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논하며 아울러 두 사람의 예정론을 중심으로 올바른 성서적 예정론은 어떤 것인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1) Barth, K., 『Church Dogmatics II/2』, G. W. Bromiley, T. F. Torrance, (T&T Clark, 1969).

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3인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이하 Inst.로 표기).

II. 갈뱅의 예정론

A. 갈뱅의 예정론의 개요

예정론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갈뱅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예정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갈뱅이 아니다. 예정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어거스틴(St. Augustine)의 시대에 이르러 신학적 논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예정론의 많은 부분들이 정립되게 된다. 또한 예정론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M. Luther)에게서 나타난다. 루터는 후기 중세기 스콜라주의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공로에 반대하여 '오직 은총'과 '오직 신앙'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언급하게 된다.³⁾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루터뿐이 아니라 쾰링거(H. Zwingli), 그리고 부처(M. Bucer)의 사상에서도 예정론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예정론은 그 역사가 길고, 또한 갈뱅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예정론의 대부(代父)로 갈뱅을 들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갈뱅이 예정론에 있어서 많은 논쟁을 벌였고, 그의 신학체계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갈뱅의 신학 체계 속에서 예정론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갈뱅의 신학 속에서 예정론은 실제로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갈뱅에 대한 주석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

3) 김영환,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23쪽.

작되기 이전에 한 때 슈바이처(A. Schweitzer)나 바우어(F. C. Baur) 등 여러 학자들이 갈뱅신학의 중심교리를 예정론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예정론이 중심교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교리가 갈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⁴⁾ 그렇다면 갈뱅이 이렇게 예정론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정론이 출현하게 되고, 예정론을 강조하게 된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갈뱅이 예정론에 관해 논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갈뱅이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을 통해서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필자는 찾아나가고자 한다.

먼저, 이 장에서는 갈뱅의 신학체계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갈뱅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속에서 예정론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신학적인 전체의 틀 안에서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초기 예정론이 나올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어떤 사상이든지 그 사상이 속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그 사상이 의도했던 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유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갈뱅의 초기 예정론이 나올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서, 예정론이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갈뱅의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4)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1994. 9.), 286쪽.

1. 갈뱅의 예정론의 위치

갈뱅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는 제 5판까지 출간되었다. 판이 거듭될수록 이 책은 양적인 면에서도 더 늘어났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신학적인 체계가 더 심화되고 발전된 것을 엿볼 수 있다. 1559년 출판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권 신론, 제 2권 그리스도론, 제 3권 성령론, 제 4권 교회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정론은 제 3권(성령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의 끝부분과 제 4권(교회론) 직전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제 1권),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제 2권)을 다룬 후, 제 3권, 화해의 실현 내지는 화해의 적용 끝 부분에서 예정론(제 3권 21장에서 24장까지)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갈뱅은 제 3권에서 이신칭의 내지는 구원론, 회개, 성화, 기도에 관하여 논한 다음에 예정론을 취급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갈뱅은 적어도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만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갈뱅이 그의 신학 체계에서 예정론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정론을 따로 분류해서 글을 저술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의 신학 체계 속에서 예정론이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 강요』 속에 나타나는 예정론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 내지는 화해사건 자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성령을 통해서 실현될 때 예정론이 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⁶⁾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5) 이형기,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있어서 예정론 비교,” 『한철하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출판부, 1984), 197쪽.

6) 위의 책, 197쪽.

죄인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며,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칼뱅의 예정론은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프랑수아 방델(F. Wendel)은 그의 책에서, 칼뱅이 점차 예정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되었던 이유는, 예정의 문제를 그의 신학의 주요 골자로 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론적이며 목회적인 열정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⁷⁾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을 경험한 칼뱅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 속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전해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또는 같은 정도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성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경탄하리만큼 깊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값없이 구원이 제공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면 즉시 중대하고 곤란한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바른 길을 따라 생각하는 바를 결정할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⁸⁾

칼뱅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제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7) 프랑수아 방델,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319쪽.

8) Inst. 3. 21. 1, 499~500쪽.

갈뱅은 구원, 회개, 성화, 기도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예정을 다루면서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갈뱅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갈뱅이 예정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거스틴도 펠라기우스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그의 예정론에 대한 사상이 드러난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와의 유명한 논쟁은 은총으로 인한 구원과 인간의 공로로 인한 구원으로 요약된다.⁹⁾ 펠라기우스주의자는 구원은 선행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어거스틴은 이에 반대하여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했다. 펠라기우스주의자와 논쟁하는 가운데서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등장하는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예정이란 용어는 어떤 자를 구원하기로 혹은 버리기로 한 하나님 고유의 영원한 결정을 의미한다.¹⁰⁾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구원을 모두가 아닌 일부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임을, 즉 하나님의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루터가 예정론을 말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9) 엘리스터 맥그래스, 『신학의 역사』, 소기천 외 3인 역, (서울: 지와 사랑, 2002), 67쪽.

10) 위의 책, 68쪽.

속하는 예정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¹¹⁾ 루터의 경우 갈뱅보다는 훨씬 예정론을 덜 강조하지만 후기 중세기 스콜라주의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공로에 반대하여 오직 은총과 신앙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다가 이 예정교리를 언급하게 된다.¹²⁾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갈뱅은 예정론을 다름에 있어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갈뱅의 예정론의 강조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갈뱅의 초기 예정론의 삶의 자리

갈뱅은 1509년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향에 있는 까뻬뜨(Capettes) 대학의 과정을 마친 후에 학업을 위해서 파리로 갔다. 그때가 1523년 그가 14살 되던 해였다.¹³⁾ 그는 이때부터 파리와 오를레앙, 부르주 같은 대학도시들을 다니면서 신학, 법학, 문학 등을 공부했다. 이 당시 독일이나 스위스 등지에서는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 여파가 파리와 여러 지방 도시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었고, 루터의 『교회의 바벨론 포로(De captitate)』나 『그리스도인의 자유(De libertate christiana)』와 같은 저술들이 많이 읽혀지고 있었다.¹⁴⁾ 이 때는 종교개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갈뱅은

11)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23쪽.

12) 이형기,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있어서 예정론 비교,” 197쪽.

13) 프랑수아 방델,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18쪽.

14)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287쪽.

1530년대 초반부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갈뱅은 정확한 이유나 정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1533년 정도에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적인 기독교의 전파자가 되었다.¹⁵⁾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군주 프랑수아 1세가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다. 특히 1534년 10월에 일어난 플라카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갈뱅은 일단 빠리를 떠났다가 프랑스를 벗어나 바젤로 갔다. 그는 1535년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 집필을 마치고 그 이듬해인 1536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은 비교적 간결한 책이었고 그 크기도 작았는데, 그 이유는 박해받는 개신교도들이 망토 속에 숨겨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¹⁶⁾

갈뱅의 초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제 II장 “신앙에 관하여”(De Fide: 사도신경풀이)에서 교회를 정의하기 위해서 예정교리가 다루어지고 있다.¹⁷⁾ 『기독교 강요』 초판에 따르면, ‘거룩한 공교회’는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수 전부’인데,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의 인도자이며 왕자이며 몸으로 볼 때 머리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모두 모여지기 위해서 세상에 세워지기도 전에 그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한다.¹⁸⁾ 또한 갈뱅은 하나님의 선택은 소명과 칭의로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는데,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고

15) 갈뱅이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회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갈뱅의 회심은 수많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프랑수아 방델은 그의 책에서 갈뱅의 회심을 1533~1534년으로 보고 있다. 프랑수아 방델,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45~46쪽.

16)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287쪽.

17) 이형기,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있어서 예정론 비교,” 198쪽.

18)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287쪽.

칭함을 얻은 사람들을 선택된 사람들로 보는 것이다. 선택된 사람들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건물이 전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¹⁹⁾는 것이다.

이렇게 갈뱅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그의 예정론을 처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갈뱅의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갈뱅은 그동안 그가 속해 있던 카톨릭 교회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갈뱅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신자들이 카톨릭을 떠났다. 그런데 갈뱅을 비롯해 카톨릭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카톨릭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몸담고 있던 카톨릭과 심한 갈등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 목숨을 내놓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갈뱅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교회론을 말하고 예정론을 말하면서 강조한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실성이었다.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꼭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선언이 당시 신앙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²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예정론의 삶의 자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확고한 구원의 근거를 제시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 초기 예정론의 목적은 자신들을 적대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며 또는 스스로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오직 당시에 신앙의 문제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개신교도들에게 자신의 정

19) 위의 책, 288쪽.

20) 위의 책, 289쪽.

체성을 확인하고, 또한 선택된 자들의 구원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확고히 서라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교리였던 것이다.

3. 갈뱅의 예정론의 발전 과정

앞에서 언급한대로, 갈뱅의 예정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536년에 출판된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였다. 여기에서 갈뱅은 예정론을 사도신조를 해설하는 네 번째 단락 교회론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예정론은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로서 개별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단지 교회론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정론이 언급될 뿐이다.²¹⁾

그 이듬해인 1537년 그는 최초의 교리문답을 작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네바 요리문답』이다. 제네바 요리문답의 내용구조는 다음과 같다; I. 하나님과 인간에 관하여, II. 주님의 율법에 관하여, III. 신앙에 관하여, IV. 기도예에 관하여, V. 성례전에 관하여, VI. 교회와 국가의 질서에 관하여. 이 중에서 예정론은 제 III장, ‘신앙에 관하여’에서 등장한다. 이 점에서는 『기독교 강요』 초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²²⁾ 그러나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두드러진 것은 갈뱅이 최초로 이중예정을 말하고 있다는 점과, 선택의 확실성을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²³⁾

또한 갈뱅은 1539년 스트라스부르에서 『기독교 강요』 2판을 발

21) 이형기,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있어서 예정론 비교,” 198~199쪽.

22) 위의 책, 199쪽.

23)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291쪽.

행했는데, 그 때에서야 비로소 예정론은 제 8장에 “신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자리잡게 된다.²⁴⁾ 이 때의 예정론은 내용적으로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정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중심으로 갈뱅의 예정론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B. 예정론의 내용

1. 이중예정

갈뱅의 예정론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 3권 21장에서 24장까지 나타난다. 예정론을 논하기 시작하는 21장의 제목은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되었다는 이중예정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 전에 확정하셨다는 것이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 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

24) 위의 책, 291쪽.

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²⁵⁾

이러한 영원한 결정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에는 인간 쪽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영원한 작정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구원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음을 칼뱅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2. 선택의 근거와 이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놓여 있다. 칼뱅에 의하면,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근거가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는 것이다. 칼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욱 고차원적인 원인을 묻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며, 이 일은 “그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엡 1:5 상반절) 이런 말로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수단을 일체 배제한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만 바울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를 그들이 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각각 간직해두신 것이라는 이 한가지 근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²⁶⁾

25) Inst. 3. 21. 5, 507쪽.

26) Inst. 3. 22. 2, 517~518쪽.

앞의 글에서 칼뱅은 예정의 한가지 근원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각 사람을 선택한 것이며, 선택된 사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작성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칼뱅은 선택의 근거가 분명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엡 1: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사실 이외에 다른 것에서 선택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다. 칼뱅의 예정론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은 선택의 근거와 이유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쪽에서의 그 어떤 것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3. 예지와 예정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택의 근거와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칼뱅이 주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칼뱅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1장을 할애하여 예정론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예정론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 그만큼 예정론을 반대하는 무리도 많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의지에 관한 문제였다. 칼뱅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함을 볼 수 있다. 예정론을 비판하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줄곧 어리석은 자들, 불경건한 자들, 심지어는 “개들”(dogs)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에게 대해서 칼뱅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결정이나, 심지어는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임을 칼뱅은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기도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유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결정임을 칼뱅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강박하게 만드시기도 한다고 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서는 다른 원인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²⁷⁾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하면서, 칼뱅은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또한 강조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칼뱅은 믿음과 회개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 칼뱅의 주장이다. 이처럼 칼뱅은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당시에 칼뱅의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27) Inst. 3. 22. 11, 534쪽.

이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결정하신다고 한다.²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지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게 행동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예정하신다고(다시 말해서 예정은 예지에 속한 것이라고)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갈뱅은 예지와 예정의 관계를 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그 무엇도 미리 보시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임을 갈뱅은 분명히 하고 있다.²⁹⁾ 갈뱅은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예정이 예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그 예정을 감히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 특히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반대 의견으로 예정을 덮어버린다. 물론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다 하나님 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⁰⁾

계속해서 갈뱅은 예정과 예지를 구별하면서 예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예정을 설명한다.

28) Inst. 3. 22. 1, 514쪽.

29) 한국갈빈학회, 『갈빈 신학 해설』, 335쪽.

30) Inst. 3. 21. 5, 506~507쪽.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무 것도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참으로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같이 보시며 식별하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예지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³¹⁾

이렇게 갈뱅은 예지와 예정을 설명하면서,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이 예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선택은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택은, 달리 표현해서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것임을 갈뱅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로서 갈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전체를 예를 들이면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32:8~9) 그 선별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밝히 알 수 있다. 다른 백성들이 제외되고 마른 나무와도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서 한 민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모세가 후세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우수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칠 따름이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원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

31) Inst. 3. 21. 5, 507쪽.

랑하셨고 “그 후손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신 4:37).³²⁾

갈뻡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을 하거나 공로를 세울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세운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혹은 예정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때문이었음을 갈뻡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갈뻡은 에베소서 1:4~5절³³⁾을 살펴보면, 창세 전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예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한다.

바울은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후에 아담 안에서 동등한 인간들이 될 사람들을 서로 구별할 조건은 무엇인가?... 더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선택의 원인을 예지라고 생각하는 과오를 반박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덕은 선택의 결과라고 바울이 언급하기 때문이다. 더욱 고차원적인 원인을 묻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며, 이 일은 ‘그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³⁴⁾

이와 같이 갈뻡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결론을 갈뻡은 맺고 있는 것이다.³⁵⁾

32) Inst. 3. 21. 5, 507~508쪽.

33)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34) Inst. 3. 22. 2, 517쪽.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칼뱅의 예정론에 있어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마 3:17 참조).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 그만이 생명의 샘이며, 구원의 닻이며, 천국의 상속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한다(엡 1:4).³⁵⁾

이렇게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임을 칼뱅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삼기 원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 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보아야 하는 거울이다.”³⁷⁾

계속해서 칼뱅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인정

35)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338쪽.

36) Inst. 3. 24. 5, 565쪽.

37) Inst. 3. 24. 5, 566쪽.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안에서 이미 얻은 것, 그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그의 밖에서 찾는 것은 그 얼마나 미친 짓인가?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며, 불변의 진리이며, 견고한 계획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를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의 처음부터 영원까지를 우리에게 충실히 계시해 주신다.³⁸⁾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칼뱅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중보자임을 동시에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⁹⁾

5.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

칼뱅은 자신의 예정론의 근거를 철저히 성경 속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알아도 좋은 모든 일을 탐구할 때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추어 주는 빛은 주의 말씀뿐이다.⁴⁰⁾

38) Inst. 3. 24. 5, 566~567쪽.

39)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344쪽.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할 때, 그 근거는 오직 성경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예정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당시에 칼뱅의 예정론에 대한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펼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정론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을 말한다. 칼뱅은 이렇게 말한다. “즉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려는 것이거나(욥 12:24 참조) 또는 어두운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 않게 어리석다는 것이다.”⁴¹⁾

a. 선택의 성경적 근거

칼뱅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정론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예정론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는 먼저 신명기 32:8~9절을 근거로 하여 예정론을 이끌어내고 있다.⁴²⁾ 신명기 32:8~9절 말씀은 다음과 같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32:8~9).

하나님께서서는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개개인에게서 증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우

40) Inst. 3. 21. 2, 503쪽.

41) Inst. 3. 21. 2, 503쪽.

42) Inst. 3. 21. 5, 507쪽.

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백성들은 제외되고 마른 나무와도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서 한 민족이 특별히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원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랑하셨고, “그 후손 너를 택하였기”(신 4:37)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을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에서 찾고 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33:12)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삼상 12:22)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시 65:4)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사 14:1)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사 41:9)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는 어떤 것으로도 침범될 수 없음을 갈뱅은 예정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갈뱅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는 확실한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서 1:4~5절 말씀이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경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며, 이것은 창세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갈뱅은 말한다.

b. 유기의 성경적 근거

갈뱅은 유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성경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 그리고 에서가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고, 유사한 일례로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사울이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바를 갈뱅은 주목한다.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시 78:67~68) 이처럼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이 영역임을 갈뱅은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롬 9:13) 라는 구절을 근거로 유기 또한 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론이라는 사실을 갈뱅은 강조한다.

c. 로마서 9~11장

로마서 9~11장을 통해서 갈뱅은 예정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은 갈뱅이 그의 예정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본문이다. 갈뱅은 로마서 9:11~13절 말씀을 인용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9:15~18절도 중요한 구절이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갈뱅은 예정론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인간 편에서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한다. 또한 이 본문을 근거로 예정이 예지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 예정이 예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속에 있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갈뱅은 자신의 예정론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사고를 토대로 갈뱅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신학의 모든 근거로 보았다. 특히 갈뱅은 예정론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근거로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던 것이다.

C. 갈뱅의 예정론의 특징

지금까지 갈뱅의 예정론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과 예정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의 사실들을 통해서 갈뱅의 예정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로, 갈뱅의 예정론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격을 갖는다.⁴³⁾ 예정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고, 심판 역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갈뱅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의 절대은총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이 곧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그의 예정론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 갈뱅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징을 갖는다. 빌헬름 니이젤(W. Niesel)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신이 그의 의로우심을, 이미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보여 준 것과 같이 선택된 자의 구원과 버림받은 자의 형벌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그의 영광이 있다고 한다. 신의 영광이라는 이 사상은 칼빈 신학 전체를 꿰뚫고 있으며 또한 칼빈 신학 이해의 마지막 열쇠이다. 이러한 신 개념과 연결된 예정 교리가 그의 신학 체계의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 연역된다.⁴⁵⁾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은혜와 은총으로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며,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크신 심판주를 두려워

43)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293쪽.

44) 박봉량, 『칼빈의 예정론』, (서울: 한신대출판부, 1978), 133쪽.

45)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5쪽.

할 뿐이다.⁴⁶⁾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 영광의 신학이 칼뱅의 예정론의 첫 번째 특징이다.

둘째로, 칼뱅의 예정론의 특징은 인간의 선행에 의한 구원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반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칼뱅의 예정론의 첫 번째 특징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인간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의 예정론에 있어서 펠라기우스주의적이거나 아르메니우스적인 사고는 철저하게 배격당한다. 인간의 종교적인 수행이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은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 칼뱅의 예정론을 관통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루터의 관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시작되었는데, 루터의 가장 큰 관심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함을 볼 수 있다.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직 신앙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앙이 그 자체 안에서 자신의 자유와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것 이외의 다른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측량할 길 없이 값진 권세요 자유이다.⁴⁷⁾

46)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293쪽.

47)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01), 61쪽.

루터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떠한 요소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한다. 갈뱅이나 루터, 두 사람 모두 행위에 대한 구원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면에서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에 의한 선택이나 구원을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 갈뱅의 예정론의 두 번째 특징이다.

셋째로, 갈뱅의 예정론의 특징은 그 예정론이 나온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뱅의 예정론의 의도는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시의 삶의 자리에서 볼 때 갈뱅의 예정론의 의도는, 당시 꺾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고한 것이며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이에 대한 논의는 갈뱅의 ‘초기 예정론의 삶의 자리’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다). 이처럼 갈뱅의 예정론은 철저한 목회적인 관심에서, 그리고 목회적인 경험에서 출발되어졌으며, 믿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다 는 사실이 갈뱅의 예정론의 세 번째 특징이다. 갈뱅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기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도 그 일원이 될 때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나눠 받게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것이다.⁴⁸⁾

이렇게 갈뱅의 예정론의 본래적인 의도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48) Inst. 4. 1. 3

우리가 가려낸다거나 하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갈뱅이 예정론을 말한 이유는, 선택받은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핍박이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확고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귄에 들어가게 해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하는 것이 갈뱅이 예정론을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물론 갈뱅이 선택을 말하면서 동시에 유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갈뱅이 강조하는 쪽은 유기에 있지 않다. 제이콥스(Paul Jacobs)는 갈뱅의 예정론을 연구하는 중에 갈뱅의 조직신학적 저술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과 그의 설교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는 하나의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설교에서는 그가 유기에 대해서 드물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⁹⁾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갈뱅이 예정론을 말한 본래적인 의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고,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목회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로, 갈뱅의 예정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에로의 소명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칭의로서 증거되고 나타난다. 그래서 갈뱅의 견해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보아야 하는 거울”⁵⁰⁾이 되는 것이다. 갈뱅은 이렇

49)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49쪽.

50) Inst. 3. 24. 5, 566쪽.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신의 영원한 선택의 근거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⁵¹⁾ 이처럼 갈뱅은 그의 예정론을 전개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선택을 충돌함 없이 설명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1) 이오갑, “갈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296쪽.

Ⅲ. 칼 바르트의 예정론

A. 칼 바르트의 예정론의 개요

1. 바르트의 전통적인 예정론에 대한 비판

칼 바르트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르트는 갈뱅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세기 신학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신학자인 바르트는 예정론에 있어서도 큰 획을 그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예정론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예정론의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바르트 이후의 신학자들은 예정론을 논함에 있어서 바르트의 예정론에서 시작해야 할 정도로 그의 예정론은 예정론의 역사를 다시 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르트의 예정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바르트는 1936년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Gottes Gnadenwahl)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은 전통적인 예정론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강연이었다.⁵²⁾ 이 강연을 통해서 바르트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예정론을 비판하고, 예정론에 대한 획기적인 신학을 사람들 앞에 내놓게 되고, 이 때의 예정론이 발전을 거듭하여 후에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예정론(K.D. II/2) 속에 담기게 되는 것이다. 1936년의 강연 속에는 어거스틴, 갈뱅, 베자(T. Beza)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예정론을 관찰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바르트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

52)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301쪽.

전통적인 예정론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을 살펴보는 것은 바르트의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예정론을 비판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향에서 바르트의 예정론을 이해할 때, 전통적인 예정론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바르트의 예정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6년의 강의에서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론의 문제점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⁵³⁾

첫 번째로, 전통적인 예정론은 하나님의 현존하는 자유와 주권을 해친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의와 자비를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은혜와 심판을 주시기로 결의하셨고, 또 현재 결의하고 있고 장차 결의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미 고정된 어떤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 예정론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면서 선택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해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예정론은 고정된 체계만 남은 기계적 예정론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예정론은 만세 전에 일정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으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로 예정되었음을 가르쳤다. 인간의 구원과 저주가 이미 만세 전에 결정되었다는 전통적인 예정론은 기계화, 고정화 되었다고 바르트는 비판한다.

세 번째로, 전통적인 예정론은 회개에로의 진지한 부름을 해친다. 전통적 예정론은 인간의 믿음이나 결단 이전에 이미 결정된 영원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중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엄숙성이 희생된다고 바르트는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바르트는 전통적이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예정론을

53) 위의 책, 301~302쪽.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예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예정론을 펼치고 있다.

2. 바르트의 예정론의 위치

많은 신학자들은 먼저 신론을 기술한 다음에 창조론을 기술하고, 창조론 다음에 예정론을 기술했다. 이러한 배열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창조되고 예정되어 있기 이전에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며, 그 다음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다.⁵⁴⁾ 이러한 조직신학적 구조 속에서는 신론과 예정론은 사실상 분리되어 있게 된다. 그러나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정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오직 예정하는 자로서 존재할 뿐이므로, 바르트의 신학 체계에 있어서 예정론은 신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⁵⁵⁾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 예정론을 다루는 부분은 II/2권에 서다. K.D. I은 말씀론, K.D. II는 신론, K.D. III은 창조론, K.D. IV는 화해론을 다루고 있는데, 바르트는 예정 문제를 K.D. II 신론 중에서 취급하고 있다. 바르트는 그의 예정론을 기독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르트는 예정론을 “복음의 총화”⁵⁶⁾ (Summe der Evangelium, sum of gospel)로서, 인간에게 공포와 위협이 아니며, 오직 위로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인간

54)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261쪽.

55) 김균진, 『헤겔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303쪽.

56) 오토 베버,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98쪽.

을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고자 결정하신 사건, 즉 은총의 선택을 뜻하는 것이다.⁵⁷⁾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정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정의 근거와 거울이 된다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다.

사실상 바르트의 전 교의학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론이라고 까지 볼 수 있다면, 그의 신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⁵⁸⁾ 이렇듯 바르트는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면서, 기독교론 중심으로 예정론을 풀어가고 있다. 이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정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B. 칼 바르트의 예정론의 내용

1. 예정론의 방향과 근거

a. 예정론의 방향

바르트는 예정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예정론에 대한 성경의 증거에 대한 그의 위임을 강력하게 확증하면서 예정론에 대한 방향을 정립한다.⁵⁹⁾ 예정론은 성서에 기초한 것임을 바르트는 강조한다. 예정론은 성서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예정론에 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예정론을 말함에 있어서, 이 예정론이 성경 속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성서의 말씀에 기초한 예정론은 복

57)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I』, 264쪽.

58) 이형기,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있어서 예정론 비교,” 210쪽.

59)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130쪽.

음의 총화임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약 선택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이다.⁶⁰⁾ 예정론의 기능은 하나님의 모든 길과 역사의 시작으로 영원하고 자유하며 불변하는 은총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정론은 인간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의 예정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예정론에 나타나는 불안이나 공포가 아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b. 예정론의 근거

바르트는 역사적 예정론의 잘못된 근거를 네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예정론을 비판하는 것이다.⁶¹⁾ 여기서 바르트는 예정론의 참된 토대와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증언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⁶²⁾ 예정론은 추상적인 사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출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성서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되어야 함을 바르트는 역설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예정론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론의 근거로 삼고자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예정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60)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30쪽.

61) 이 네 가지 잘못된 근거는 교회 전통, 목회적 방편, 인간적 경험, 전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다; 교회 전통은 예정론의 연구를 도와줄 수는 있으나 예정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예정론은 어떤 가치나 방편, 다시 말해서 목회적 방편을 근거와 규범으로 삼을 수 없고 먼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는 근거를 질문해야 하며, 이 근거에서 출발하여 예정론의 목회상의 가치와 용도가 질문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적 경험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은 잘못이며, 자연법칙에 따라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예정은 그의 전능이 나타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백철현, 『은총의 선택』, (서울: 기민사, 1986), 50~51쪽.

62)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32쪽.

결국 바르트의 예정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서는 안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바르트의 예정론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a. 선택의 주체와 객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을 바르트는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힘과 자유”로 규정한다.⁶³⁾ 이 넘치는 사랑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그리스도의 자기 존재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신의 자기 규정은 다음과 같은 2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⁶⁴⁾

첫째, 신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

둘째, 신은 스스로를 선택된 자로 규정하면서 인간과 관계한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다시 말해서 신의 원결정에 있어서 언급되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있게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고 인간의 구원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⁶⁵⁾ 그러므로 예수 그

63)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54쪽.

64) 위의 책.

65) 백철현, 『은총의 선택』, 54쪽.

리스도는 하나님의 시작이면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선택이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시작도 선택도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근거되어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밖을 향한 모든 역사, 즉 현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과 시작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사실은 모든 다른 사건에 선행하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어난 선택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선택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택받은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명제 속에 바르트의 예정설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다.⁶⁸⁾

1)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

바르트는 이 명제의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1~2절⁶⁹⁾을 삼고 있다. 태초에 말씀(예수 그리스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분의 길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며 그러한 뜻에서 볼 때 인간을 향하여 있는 선택

66)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34쪽.

67) 백철현, 『은총의 선택』, 55쪽.

68) 오토 베버,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100쪽.

69)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임을 알 수 있다.⁷⁰⁾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피조물에 관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대상들 가운데 있는 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 곧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유의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일 뿐만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 자체인 것이다.⁷¹⁾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참 순종으로서 자신의 신적이고도 자유한 결정, 자유한 그 자신의 선택인 것이다. 이처럼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결정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모든 피조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은 피조된 존재의 유일한 존재인 인간 나사렛 예수의 활동,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지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그 결정의 대상과 내용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구원을 그 대상과 내용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⁷²⁾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이라는 명제 속에 함축된

70) 오토 베버,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101쪽.

71) 백철현, 『은총의 선택』, 58쪽.

72) 위의 책, 60쪽.

의미를 다음의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은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우리에게 대한 모든 방법들과 사역들의 시초에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은총은 단순히 그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내어줌 속에 있는 그의 내적인 영광의 차고 넘침을 의미한다.⁷³⁾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밖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 예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피조물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들 예수를 그 자신의 아들로 불리게 하고 또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이다.⁷⁴⁾

둘째, 인간 예수의 선택, 특히 그의 대리적인 순종과 수난의 선택이다.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의 완성 안에서 이 거절을 감당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거부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⁷⁵⁾

선택된 인간 예수는 고통을 당하고 죽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유한 은총은 영원 전부터 이런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초래한 버림 받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수에게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스스로 유혹과 파멸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다.⁷⁶⁾ 인간 예수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죄된 인간을 책임지며,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

73)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36쪽.

74) 백철현, 『은총의 선택』, 62쪽.

75)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36쪽.

76) 백철현, 『은총의 선택』, 63쪽.

한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과 하나님의 그에 대
한 신실성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
한 선택을 예수가 현실화한 것에 기초한 그들의 예수에 대한 신앙을 의미
한다.⁷⁷⁾ 그러므로 선택이란 그 안에서 제사장이자 희생물이며, 하나님의
의로움이며 대변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존대하며 찬미하고 또한 사랑
하는 것이다. 이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 대상
이다.

b. 이중예정

전통적인 이중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일군의 무리는 영원한
선택으로, 일군의 무리는 영원한 심판으로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중예정에 대해서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⁷⁸⁾ 바
르트는 이중예정을 긍정한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예정
론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
에게는 선택과 축복과 생명을 허락하셨고, 자신에게는 저버림과 형벌을
돌리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버리셨
다는 것이다.⁷⁹⁾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택된 자의 유기’와 ‘버림받은 자의
선택’의 예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사실상 이중적인
데, 그 의지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당해
야할 부정을 하나님이 당하시고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세우심으로서 인간

77)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36쪽.

78)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Universalism 논쟁을 중심으로” (미간행논문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0), 21쪽.

79)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72쪽.

을 선택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긍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론의 구조 속에는 긍정만이 존재하지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오른편에로의 선택이지 왼편으로의 유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극단적인 대리(代理)이며 과격한 교환(Tausch)이다. 이렇게 예정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부터 결정된 인간의 무죄선고이며, 인간을 유기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⁰⁾

결국 이 부분이 전통적인 이중예정과 바르트의 예정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주체인 동시에 객체”라는 명제를 통해서 전통적인 이중예정론으로부터 획기적인 예정론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르트 신학의 결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예정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또한 바르트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악은 다만 불가능한 것의 실존가능성이고, 비현실적인 것의 실존가능성이므로, 다만 무력한 것의 독자적인 힘만 가지게 된다고 한다.⁸¹⁾ 악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미 극복되어졌다. 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즉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그 힘을 잃고, 무력하게 처벌받았다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이다.

3. 공동체를 통한 선택의 중개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론의 성격이 ‘개인주의적인 협소화’의 성격

80)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 22쪽.

81) 오토 베버,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103쪽.

으로 기울어짐으로써 개인주의적이고 특수주의적인 경향을 지나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공동체의 선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원한 사건으로서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개인의 선택 사이의 하나의 중간적이고 중재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⁸²⁾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매개되며 조건지워진다. 이러한 공동체의 성격 또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이중적인 예정에 상응하는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멸하는 형태요, 교회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거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의 거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감당하는 심판과 선택의 부정적인 측면을 증거하며 교회는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증거하는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의 완전한 형태로서 이스라엘의 선택의 목적의 근거가 된다.⁸³⁾ 그러므로 두 공동체,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행위에서 구원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부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그 분이 너 대신 버림을 받으셨으니까-도리어 너는 택함을 받았다”⁸⁴⁾고 그들의 선택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82)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 27쪽.

83) 위의 글, 28쪽.

84) 오토 베버,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106쪽.

4. 개인의 선택

복음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개인의 마땅한 버림받음을 담당하셨다. 이것이 은총의 언약이다. 각 개인은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건과 결정에 의하여 선택받은 자로서 살기 시작한다. 만약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그의 선택 대신에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간다. 만약 그가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적 선택은 항상 “당신은 그 인간이다”⁸⁵⁾라는 인격적인 주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불신앙을 너무 진지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신적인 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택함받은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위임사항은 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⁸⁶⁾

또한 바르트는 선택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 사이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택된 자도 유기된 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떨어져서 보아서 안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유기된 자)이 본성적으로는 거부하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내팽개칠 수 없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에 의하여 그들이 나타나 보이듯이 하나님의 구별로부터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⁸⁷⁾

C. 바르트의 예정론의 특징

85)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143쪽.

86) 오토 베버,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107쪽.

87) 위의 책, 144쪽.

바르트의 예정론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예정을 복음의 총화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은 인간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유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긍정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르트는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Johann Christoph Blumhardt)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유명한 말, “예수는 승리자이다!”(Jesus ist Sieger!)라는 말을 선호했고, 일찍이 은총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했던 바르트는 은총이 기독교 신인식(神認識)과 인간인식(人間認識)이 가능한 장소라고 했다.⁸⁸⁾ 이처럼 바르트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강조된다.

바르트의 예정론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 중심으로 그의 예정론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그의 예정론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바르트가 신론에서 그의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정론을 기독교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고, 그 어떤 예정론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인 동시에 선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정론을 논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예정론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바르트의 예정론의 세 번째 특징은 그가 예정론을 삼위일체론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결단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인간이 되시고 이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기로 한 ‘아버지의 선택’

88)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 99쪽

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로 한 ‘아들의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의 신성을 증명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성령의 결정’이 있었다.⁸⁹⁾ 이와 같이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바르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다루고 있다.

바르트의 예정론의 네 번째 특징은 이중예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전통적인 이중예정과 확연히 다르다.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론과는 전혀 다른 이중예정을 말하고 있다. 바르트가 말하는 이중예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구원을 선택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게 하였다는 것이 바르트가 말하는 이중예정이다. 전통적인 예정론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바르트의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버림받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선택의 대상이 된다.⁹⁰⁾

89)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 17쪽

90) 백철현, 『은총의 선택』, 118쪽

IV. 갈뱅과 바르트의 예정론 비교

갈뱅과 바르트는 개혁신학의 두 거장이다. 갈뱅은 종교개혁 시대를 살면서 개신교의 교리를 정립한 신학자이고, 바르트는 갈뱅 이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두 거장이 예정론을 주장하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신학자의 예정론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같은 성경 본문에 대한 다른 주석이다. 예정론에 대한 중요한 본문으로 두 사람 모두 로마서 9~11장을 주석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을 놓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먼저 갈뱅은 로마서 9~11장을 이중예정의 본문으로 해석한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내용이나 토기장이의 비유 본문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분은,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갈뱅 당시의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택된 자들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바르트는 자신의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인 갈뱅의 예정론을 비판하는데, 전통적인 예정론은 로마서 9~11장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중예정이 나왔다고 한다.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는 무시무시한 이중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다.⁹¹⁾ 바울은 이 비유를 저주의 백성이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고자 작

91)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74쪽.

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는 의도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⁹²⁾

이렇게 같은 본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서 다른 예정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런 성서 해석의 차이에서 두 사람의 예정론은 다르게 나타난다. 성경에는 갈뱅의 이중예정을 나타내는 본문들도 있고, 또 인간의 보편구원을 나타내는 본문들이 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해석의 차이에서 두 신학자의 이중예정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신학자는 모두 이중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중예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갈뱅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을 말한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과 유기된 사람을 정해져 놓았다. 그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이중예정의 의미는 갈뱅의 이중예정과 다르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간이 당해야 할 부정을 하나님이 당하시고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세우심으로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르트의 이중예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신학자는 자신의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갈뱅은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37년 『제네바 신앙고백』에서는 예정론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다가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야 비로소 예정론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다. 갈뱅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이신칭의, 구원, 회개, 성화, 기

92) 위의 책, 75쪽.

도에 관하여 논한 다음에 예정론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정을 은총과 신앙으로 말미암은 구원론에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³⁾ 칼뱅이 이중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의 예정론은 정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예정론을 제 II권 신론에서 다루고 있다. 바르트는 예정론을 “복음의 총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공포와 위협이 아니며, 오직 위로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바르트는 규정한다. 예정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은총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택교리란 화해교리의 마지막 말이요, 최초의 말이요, 중심적 말이다. 그런데 화해교리 자체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들과 모든 교리들의 마지막 말이요, 최초의 말이요 중심적인 말이다.”⁹⁴⁾ 이렇듯 바르트의 신학에 있어서 신론과 예정론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두 신학자의 예정론은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칼뱅은 예정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예정은 인간 편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선택된 자들에게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바르트는 그의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다.

93) 위의 책, 225쪽.

94) 위의 책, 226쪽.

바르트는 하나님의 본질을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힘과 자유'⁹⁵⁾로 정의하고 있다. 이 넘치는, 충만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였다. 예정이란 인간이 당해야 할 '부정'(Nien)을 하나님이 당하시고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세우심으로써 인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긍정'(Ja)이기 때문에, 그의 예정론의 구조 속에는 '긍정'(Ja)만이 존재하지 '부정'(Nien)은 존재하지 않는다.⁹⁶⁾ 이처럼 바르트는 자신의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

95)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54쪽.

96)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 22쪽.

V. 결 론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교리임에 틀림없다. 예정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놀라움과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갈뱅은 예정론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 했고, 바르트는 예정론을 “복음의 총화”라고 했다. 두 신학의 거장들이 예정론을 각각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정론이 담고 있는 신학적 가치와 예정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예정론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역사가 상당히 깊음을 알 수 있다. 예정론의 역사를 소급해 올라가면 어거스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예정론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긴 역사 동안 논의 되어 온 교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예정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것은 어거스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루터나 갈뱅 시대에도 예정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이 반대의 목소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정론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그리고 “복음의 총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과 은총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갈뱅과 바르트,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예정론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교리임을 말한다.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교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갈뱅이 비록 이중예정을 말하면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지만, 갈뱅이 이중예정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이 예정론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갈뱅과 바르트 모두 예정론을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교리임을 알고, 그 은총을 드러내는 교리로서 예정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예정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칼뱅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선택된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을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칼뱅이 유기를 말하고 있지만, 칼뱅의 예정론의 본래의 의도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선택된 자들을 향한 구원의 확실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의 예정론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칼뱅의 예정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창의적인 예정론을 제시한 신학자가 바르트라 할 수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기초한 은총의 예정론을 주장함으로써 창의적인 예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예정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와 하나님의 주권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깊은 통찰의 빛을 던져 주었고, 그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해석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더해 주고 있다.⁹⁷⁾ 물론 바르트의 예정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성서적이고 복음적이고자 한 바르트의 진지한 태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그의 통찰 가운데서 성서의 분명한 증언과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걸러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가 확립했던 기독교 중심적인 신학체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구신학의 체계이면서 한계이기도 한 체계화와, 논리적 일원화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⁸⁾

97)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 125쪽.

98) 위의 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주장하는 예정론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전통적인 예정론을 극복하여 더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신학은 탐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신학은 계속적으로 비판받아야 하고, 그 비판들이 극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근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서로부터 출발하여 전통적인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바르트의 진지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르트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성서의 증언과 복음의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신학을 확립해 나가는 탐구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arth, K., 『Church Dogmatics』 ,
G. W. Bromiley, T. F. Torrance, T&T Clark, 1969
-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3인 역, 『기독교 강요』 ,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1.
-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프랑수아 방델,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 김재성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제프리 브로밀리,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오토 베버,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헤겔과 바르트』 ,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 맹용길, 『현대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박봉량, 『칼빈의 예정론』 , 서울: 한신대출판부, 1978.
- 백철현, 『은총의 선택』 , 서울: 기민사, 1986.
- 윤성범, 『칼 바르트』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이종성, 『신론』 ,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 ,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신대출판부, 1984.
-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이오갑,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1994. 9.
- 이형기,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있어서 예정론 비교,” 『한철하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 1984.
- 백경삼, “J.Calvin의 예정론과 K.Barth의 선택론의 비교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91.
- 신옥수, “K. Barth의 만인화해론 연구,” 미간행논문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0.
- 유태주, “요한 칼빈과 칼 바르트의 예정교리비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4.
- 윤호철, “칼빈의 예정론과 바르트의 선택론 비교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 조익홍, “칼바르트의 예정론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1.